

# 최서북단 백령도에 '극락정도의 道' 펼치다

### 한국불교 영산재보존회, 4월 18일 천안함 46용사 극락왕생 발원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자 230km 먼 바닷길을 달려온 불자들의 정성에 하늘도 감복했을까. 태풍과 비로 3일 간 운항이 중단됐던 항로가 열리고, 구슬피 내리던 봄비도 불경(佛經)이 울려 퍼지자 차차 찾아들었다. 무섭게 몰아치던 바람도 이내 힘을 잃고 햇빛을 내어주었다. 그 자리에 비로소 서방정도의 광명이 비추고, 조국을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의 길이 펼쳐졌다.

(사)한국불교 영산재보존회는 4월 18일 국토의 최서북단 백령도에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46용사들의 극락왕생과 남북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백령도는 북한 황해도와 마주한 곳으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 'PCC-772 천안'이 피격됐다. 이로 인해 해군병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됐다. 이곳에서 천안함 희생용사들을 위한 영산대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봉원사 주지이자 영산재보존회장을 맡고 있는 선암 스님은 "서해 5도는 분단의 상징으로, 분단 이후에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이 발생하며 젊은 장병들이 무수히 목숨을 잃었다"면서 "영산재보존회는 이런 비극적 현실을 직시, 이 땅의 평화를 기원하고 희생자들의 송고한 죽음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병대 6여단 김수용 중령은 "불자들이 천안함 46용사의 극락왕생을 기원해주시 하늘도 감복해 눈물을 흘리는 것 같다"며 "우리 용사들이 아직도 염면하지 못하고 구원을 떠도는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 46용사들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날 봉원사는 해병대 6여단 측에 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1973년 지정)이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2009

년 등재)인 '영산재(靈山齋)'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의 영취산에서 범화경을 설법하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가(靈駕)와 성인들이 한 자리에서 불법(佛法)을 구하고, 진리를 깨달아 이고극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의식이다. 영가들에 대한 영산재는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 봉원사를 중심으로 한 태고종은 이러한 영산재를 보존·계승하고 있다.

이날 입재식에 이어 본 행사인 '영산재'는 신중작법, 천수경, 복청계, 천수바라, 도량계, 법고, 시식, 봉송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 천안함 피격 사건 6주기 맞아

#### 호국영령 추모, 남북한 평화 발원

#### 서해 최북단서 첫 영산재 봉행

#### 신중작법·천수바라 등 진행

#### 곳은 날씨 불구, 150여 명 참여

#### 도내 2곳 사찰 중 흥룡사 방문도

비는 멈췄지만 옷깃을 파고드는 꽃샘추위에도 불구, 150여 명 참가자들은 의식이 진행되는 약 2시간 동안 두 손 모아 합장하며 자리를 지켰다. 초와 향이 빗물에 젖을까 품에 안은 보살들의 모습에서 애달픈 간절함마저 느껴졌다.

참가자 중에는 한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허영자(79) 씨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희생당한 젊은 영령들을 보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46명 모두가 내 아들처럼 여겨진다. 부모의 마음으로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겠

다"고 말했다.

또한 2명의 어린 손자들을 데리고 이번 행사에 참가한 정광섭(72) 씨는 "손자들에게 살아있는 역사와 희생당한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내고자 했던 애국심을 알려주기 위해 함께 왔다"며 "이번 경험을 통해 손자들이 46용사들의 존엄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곳은 날씨 때문에 재를 올리지 못할까 내내 마음 졸이던 봉원사 송명자 관음회장은 "오후에 비가 쏟아졌지만 영산재를 시작하자 비가 멈췄다. 모두 부처님의 기도로 성사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우리의 호국영령들이 극락세계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염원했다.

아울러 이른날인 19일, 참가자들은 해병대 6여단 군법당 흥룡사를 방문했다. 흥룡사는 조계종 동문사와 함께 백령도 내에 위치한 유일한 사찰로, 1980년 창건됐다. 기독교 세가 강한 백령도 지역에서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며 군인 장병들과 불자 주민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고 있다.

태고종 인천교구 총무원장 능화 스님은 "백령도는 기독교가 처음 유입돼 '기독교의 성지'라고도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6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군 포교에 큰 역할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백령도에 비행장이 생기고 지리·물리적인 접근성이 높아지면 불법포교가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이웃종교 및 지역주민들과 서로 융합하며 상호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국과 가족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이 깃든 곳, 백령도. 천안함 위령탑에는 46명의 호국영령들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자리한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이 뜨겁고도 송고했던 그들의 희생정신을 말해주는 듯하다.

백령도=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① 사)한국불교 영산재보존회는 4월 18일 백령도서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희생된 46용사들의 극락왕생과 남북평화통일을 발원하는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②, ④ 천안함 위령탑에서 펼쳐진 영산대재 모습.  
 ③ 법고 의식이 진행중이다.  
 ⑤ 봉원사 주지 선암 스님이 해병대 6여단 김수용 중령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중

# 봉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장병위문 및 수계식 행

### 종 정 월인 습득

원로원장 해공 재무원장 무착 총회회장 해륜 포교원장 도안 총무원장 법수 총무부장 도일

### 원로위원 법일

범음법패 교육원장 법수 승가중총본산 승가사 주지 선견 승가중 법사대학장 원해  
 월인문도회 문장 법중 비구니 범음 교육원장 법관

서울총무원장 정행 부산총무원장 봉선 대구경북총무원장 지운 대전총무원장 법지  
 울산총무원장 도성 경남총무원장 월곡 강원총무원장 부르나 전남총무원장 선궁

### 장병위문 수계법회 동참 스님

정광 선웅 도광 묘전 묘경 법등 법성 법관 법전 무구 선호 선봉 도성 도안 효득 선경  
 무찰 불전 선오 자용 지명 보우 법지 법중



육군훈련소 훈련병 5천여명 합동 수계법회 (2016년 4월 16일)